전법 일기

포교당은 실전이자 공부
교류, 연대로 견고히 했다

이미 포교 일선에 선 이상 갖춰져 있든 그렇지 않든 밀고 나가야 한다. 하지만 많은 스님들이 그렇듯 깨달아서 포교를 하는 분들이 얼마나 되겠는가? 그 과정이 공부요, 동시에 실전인 것이다. 마치 염불과 같다. 매일 매일 무대에 오른 듯 최선을 다하지만 오늘은 내일의 연습인 것처럼 포교당은 하루하루가 무대이다. 하지만 관객이 없을 때가 더 많은 무대.

그렇다보니 애로사항이 많을 수밖에 없다. 산 중 사찰에서 대중과 같이 살 때는 몰랐던 척박한 환경부터 신도들을 대할 때 체감하게 되는 얕은 공부와 수행이 태산처럼 버거웠다. 그때 인연이 된 게 유나방송 정목 스님께서 월암 스님과 박문호 박사를 모시고 진행했던 불이선회와 과학공부였다.

불이선회는 산철마다 4박 5일씩 월암 스님과 걸출한 스님들을 모시고 선(禪)에 대한 강의와 실참으로 진행되는 선회이다. 바쁜 일상에 백중과 정월기도 끝이라 몸은 지치고 힘들어도 이 선회를 다녀오면 승려로서 정체성을 다시 회복하게 된다. 출가의 목적이 더 확실해지고 상구보리 하화중생으로 나아가야 하는 이 길에서 나눌 수 있는 공간, 안양 행복선원 포교당이 소중하게 다가온다. 고마운 건 나와 같은 스님들과 나눈 공감대와 교류였다. 마치 잔뿌리처럼 뻗어 서로 엉키며 홀로 지탱하며 서 있던 나무가 더 많은 영양분을 흡수할 수 있도록 땅에 견고하게 자리 잡게 해 주는 느낌이다.

'참 좋은 모임이다'라고 생각하고 있을 때 정목 스님께서 박문호 박사와 함께하는 승가 과학공부 모임을 만드셨다. 명상과 관련이 많은 뇌과학이 시작이라 한 번 해봄직하다 생각해서 들어갔는데 삼년결사로 매주 금요일마다 3시간씩 지질, 천체, 생물학, 역사를 총망라해 심도있는 강의가 진행되었다.

어려운 수업이어서 중도 포기자도 있었지만, 정목 스님은 항상 기도하는 마음으로 수업에 임하셨다. 매 수업 미리와서 스님들과 예습, 복습 하는 것은 기본이고, 삭발에 의복까지 갖춰입고 수업에 임하셨다. 그리고 스님의 그 모습에 많은 스님들이 함께 하셨다. 그제야 공부가 마음에 들어왔다. 박문호 박사의 '대칭화, 모듈화, 순서화'의 공식이 과학을 넘어 불교와 삶 그 자체에도 적용되었다. 삼년결사의 회향 모임은 신라의 역사공부와 포항공대 방사광 가속기를 견학하는 것으로 마무리를 지었다. 역사와 과학은 우리 삶의 모든 것을 보여주기 때문이었다.

박문호 박사의 강의를 통해 공부하는 법을 배웠고, 정목 스님을 통해 공부하는 자세를 배웠으며, 함께하는 스님들을 통해 이 모든 것들이 환희로 남았다. 수행에 있어 스승과 도반은 수행의 전부라고 말한다. 포교당에 홀로 있어도 혼자가 아니었다. 부처님 법을 전하는 수많은 길에 그저 한 부분을 맡고 있을 뿐이다. 그 수많은 포교당이 천수천안의 눈과 손이 되어 오늘도 전법을 한다.



시현 스님
안양 행복선원 주지



공일 스님의 **바이오테크놀로지, 불교로 읽다** ⑫ 바이오테크놀로지와 '공고명(工巧明)'

바이오테크놀로지에 불교적 성찰을

바이오테크놀로지를 불교로 읽어보려 한 것이 벌써 12번째가 되었다. 한 고비를 정리하며 숨고르기를 할 때이다. 변명이라면, 바이오테크놀로지의 화려함과 장밋빛 미래를 어설프게 하지 않으려는 것이다. 합리화라면, 물질만능 시대의 휘황찬 영광의 뒤안길을 파헤치며 정작 살펴야 할 본질은 무엇인지 생각하여야 하기 때문이다. 여러모로 대관세찰(大觀細察)의 균형있는 시각을 이야기할 필요가 있다.

현대 과학기술에 대한 성찰로 과학만능의 신화가 합당한 것인지 점검하였다. 정작 연장치료, 성적자기결정권, 안락사, 생명복제 등 첨예한 문제는 다루지 못한 아쉬움이 있다. 한편으로는 당연시하며 지나쳐 온 상식들에 의문을 제기하였다. 그 과정에서 생명과 질환 등의 개념들을 짚어 보았다. 일상화된 질병들의 배후에 어떤 인식적 토대가 놓여 있는지 두드려 본 것이다. 이로써 생명현상과 관련된 사항들을 과학철학의 입장으로 문제 제기한 것이다.

우리시대의 과학 철학은 인식론으로 전향하였다. 이에 반해 바이오테크놀로지 분야는 첨단기술의 영역이기에 철저히 현장의 기술로 치닫고 있다. 향후 논란의 중심으로 들어올 가능성이 높음은 물론 위험한 상황에 봉착하고서야 성찰의 시선을 찾을 것이다. 그때는 너무 늦은 감이 있다. 철학적 시선은 뒤늦게 회복할 사인이 아니다.

불교 五明 중 '工巧明' 적용 가능
기술, 공예, 음양 등 익히는 과정
스님들 바이오테크놀로지 학습을
4차산업혁명 기술 관련 논의 필요

불교의 다섯 가지 지혜인 오명(五明) 가운데 바이오테크놀로지는 공교명(工巧明)에 배속시켜 검토할 수 있다. 공예(工)적 정교함(巧)을 뜻하는 공교한 지혜(明)는 기술, 공예, 음양, 역수 따위에 관한 학문으로 불교 수행자들이 익혀야 하는 덕목이었다. 바이오테크놀로지에 대한 이해와 기술 습득으로 해석하기에 적합한 개념이다. 위에서 설명한 것들은 이 공교명과 바이오테크놀로지의 상관성을 인식의 전향으로 읽고자 에둘러 설명한 것이다.

〈굉지선사광록〉(宏智禪師廣錄)에는 인식의 전향과 관련지어 다음과 같은 선적 표현이 있다.

경계를 빼앗는 것은 당나귀가 우물을 들여다 보는 것과 같고/ 사람을 빼앗는 것은 우물이 당나귀를 보는 것과 같다./ 삼천 세계와 백억의 몸이 있다고 하여도/ 별도로 안배할 필요 없이 단지 존재하는 것이 옳으니!

(奪境也如驢覷井 奪人也如井覷驢 三千世界百億身不用按排只者是 ; T48, 39a25-27)

인식대상과 인식주체로 이분화시키는 탈경(奪境)과 탈인(奪人)의 문제는 선의 이해라는 주제로 제한시켜 적용할 것만은 아니다. 당나귀가 우물을 보는 것(驢覷井)과 우물이 당나귀를 보는 것(井覷驢)은 이항대립되어 진영의 논리로 흐를 수도 있다. 그러므로 현상계를 긍정하고자 별도로 어떤 것을 안배할 필요는 없다.

이제 우리 사회는 다시금 원칙을 돌아볼 때이다. 신체는 불국토의 기호에 해당한다. 가려움과 통증은 우리 몸에서 벌어지는 분할적 증상이 아니라 동일한 선상의 문제이다. 신체적 자극이 미약하면 가려움이고 역치 이상의 자극은 통증으로 파악하는 것이 감각이다. 이항적 구조는 사회와 정치로 확장시켜 한반도의 현실 문제를 해결하는 도구로 활용하기에도 좋다.

〈봉은사 포교국장〉

기자칼럼

성도재일, 우리 삶 비추는 거울

2025년 을사년 1월 7일(음력 12월 8일)은 성도재일이다. 성도재일은 석가모니 부처님께서 깨달음을 이루신 날로, 불교가 시작된 중요한 순간을 기념하는 날이다.

그러나 화려한 연등 행렬과 봉축 행사가 펼쳐지는 부처님오신날과는 달리 성도재일은 크게 주목받지 못하고 지나치는 경우가 적지 않다. 깨달음의 본질을 담고 있는 성도재일의 가치는 부처님오신날 못지않게 중요한데도 말이다.

약 2600년 전 부처님은 세상의 고통을 목격한 뒤 출가해 삶과 죽음의 근본적인 문제를 해결하고자 했다. 왕자의 지위를 버리고 고행을 이어가던 부처님은 극단적인 수행만으로는 진리를 깨달을 수 없음을 알게 됐다. 그리곤 보리수나무 아래에서 모든 고통의 근원을 통찰하고, 번뇌에서 벗어난 해탈의 길을 열었다. 부처님의 깨달음은 단순히 개인의 성취에 머물지 않고, 고통받는 모든 이를 위해 행복과 평화의 길을 제시한 위대한 전환점이었다.

오늘날 현대 사회는 혼란과 불확실성으로 가득하다. 빠르게 변화하며 경쟁과 갈등도 심화되고 있다. 기술의 발전과 정보의 홍수로 우리는 끊임없이 발전하지만 아이러니하게도 내면은 더욱 고립되고 있는 현실이다. 이러한 상황에서 부처님의 깨달음은 우리에게 멈추고 돌아보라는 메시지를 전한다. 성도재일은 단순히 과거를 기념하는 날이 아닌, 오늘날 우리의 삶을 비추는 거울이다.

깨달음은 특별한 사람만이 누릴 수 있는 성취가 아니다. 부처님이 '우리 모두가 본래 부처'임을 강조한 것처럼 일상에서 자비와 감사의 마음을 실천하는 작은 행동도 깨달음으로 가는 첫걸음이 될 수 있다. 가령, 아침 햇살을 느끼며 감사하는 마음을 가지거나, 주변에 따뜻한 말 한마디를 건네거나 환경을 지키는 행동을 실천하는 등 소소한 노력이 바로 성도재일의 정신을 이어가는 방법이다.

새해의 첫 달, 부처님의 가르침을 기억하고 오늘의 삶 속에서 실천할 때 성도재일의 의미는 더 빛을 발할 것이다.



김내영 편집국 기자

현밀 스님의 **뭉밀이 佛스타툰**



일일시호일

'가족과 함께하는 삶',
3m서 추락하며 산산이 부서진 꿈

줌머인 차크마 수실 씨, 한국 동경해 입국
3m 높이서 떨어지며 양발 뒤꿈치 골절상
최소 6개월 치료 필요…부상에 일할 수 없어
아내·아이와 한국서 살고 싶어…생계 문제로 위기



농협 301-0189-0356-51 국민 023537-04-004063 예금주:일일시호일
후원신청전화 ♥정기 후원 한 달에 만원 070.4707.1080
이주노동자 지원 사업 국내 취약 계층 지원 사업
다문화가정 지원 사업 해외 지원 사업